

FRENCH SEASON

고티에 카퓌송 & 장이브 티보데



Gautier Capuçon & Jean-Yves Thibaudet



© Anoush Atrari

2024.10.01

LG SIGNATURE 홀



© Zanele Eccles



CoMPAS 24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 기획공연 CoMPAS 24

2024.4.7 - 2025.1.19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4

LG SIGNATURE 홀

4.7 Sun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마태 수난곡'
5.4 Sat	파비오 비온디 & 잔자코모 피나르디 '파가니니 소나타'
5.8 Wed - 19 Sun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6.4 Tue - 7.7 Sun	사이먼 스톤 연출 '벚꽃동산'
10.1 Tue	고티에 카뤼송 & 장이브 티보데
10.25 Fri - 27 Sun	필립 드쿠플레 '샤잠!'
11.7 Thu - 10 Sun	조엘 폼므라 '이야기와 전설'
11.13 Wed	백건우와 모차르트

U+ 스테이지

11.9 Sat - 17 Sun	이은결 연출 '멜리에스 일루션'
11.27 wed - 25.1.19 Sun	연극 '타인의 삶'

LG아트센터 서울의 2024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4'는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후원 Supported by



슈만 (1810-1856) Robert Schumann**환상소곡집, Op. 73****Fantasiestücke, Op. 73**

I. Zart und mit Ausdruck

II. Lebhaft, leicht

III. Rasch und mit Feuer

브람스 (1833-1897) Johannes Brahms**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e단조, Op. 38****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1 in e minor, Op. 38**

I. Allegro non troppo

II. Allegretto quasi menuetto

III. Allegro-Più presto

인터미션 Intermission

드뷔시 (1862-1918) Claude Debussy**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L. 135****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L. 135**

I. Prologue: Lent, sostenuto e molto risoluto

II. Sérénade: Modérément animé

III. Finale: Animé, léger et nerveux

쇼스타코비치 (1906-1975) Dmitri Shostakovich**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Op. 40****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Op. 40**

I. Allegro non troppo

II. Allegro

III. Largo

IV. Allegro

첼로 **고티에 카뤼송 Gautier Capuçon**피아노 **장이브 티보데 Jean-Yves Thibaudet****일시/장소 2024.10.1 (화) 19:30 LG SIGNATURE 홀****소요시간 10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고티에 카퓌송 | 첼로 Cello

Gautier Capuçon

“음악에 여유로움과 세련미를 불어넣으면서도 연주하는 내내
극적인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보기 드문 연주자”

San Francisco Chronicle



© Anoush Abrar

“처음 활을 켜는 순간부터 그가 최고의 첼리스트 중 한 명임을 입증하다”

The Arts Desk

1981년 프랑스 샹베리에서 태어난 고티에 카퓌송은 다섯 살에 첼로를 시작했으며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필립 물러와 애니 코셰-자킨에게, 이후 빈에서 하인리히 쉬프에게 배웠다. 1999년 국제 앙드레 나바라 첼로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고 2001년 프랑스의 권위 있는 상이라 할 수 있는 ‘음악의 승리상 (Victoires de la musique)’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두각을 나타낸 카퓌송은 이후 자신의 첼로에 ‘대사(L’Ambassadeur)’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자타공인 ‘21세기 첼로 홍보대사’로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다.

풍부한 음악성과 기교, 그리고 깊은 음색으로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그는 구스타보 두다멜, 파보 예르비, 클라우스 메켈레, 안드리스 넬손스,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같은 지휘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업하여 매 시즌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연주하고 있으며, 레라 아우어바흐, 브라이스 데스너, 대니 엘프만

과 같은 현대 작곡가들과의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다양한 레퍼토리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카뮈송은 또한 에든버러, 잘츠부르크, 베르비에 등 유럽 전역의 페스티벌에 정기적으로 초청받고 있으며, 자주 호흡을 맞춘 실내악 파트너로는 프랭크 브레일리, 제롬 뒤크로, 니콜라이 루간스키, 가브리엘라 몬테로, 마르타 아르헤리치, 다니엘 바렌보임, 르노 카뮈송,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안드레아스 오텐자머, 유자 왕 등이 있다.

에라도 레이블(Erato, 워너 클래식) 전속 아티스트인 카뮈송은 방대한 음반 녹음을 통해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클래식 레퍼토리부터 영화 음악까지 프랑스 음악을 다루고 있는 <Destination Paris>(2023), 드뤼시·슈베르트·엘가 등을 녹음한 <Emotions>(2020)를 발매했으며 <Sensations>(2022)과 같이 다양한 장르의 대중적인 곡들을 연주한 앨범들은 프랑스에서만 50,000장이 넘게 판매되고 수천만 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의 대표 음반으로는 프랭크 브레일리와 함께한 베토벤 소나타 전집,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르노 카뮈송, 그리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의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슈만 작품 실황 녹음 앨범, 유자 왕과 함께한 쇼팽과 프랑크 소나타, 그리고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바흐, 뒤티외, 코다일을 수록한 솔로 앨범 등이 있다.

클래식 전문 사이트 '바흐트랙'이 발표한 통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첼리스트' 1-2위에 최근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연주자로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고티에 카뮈송은 2023년 브리짓트 마크롱 여사의 자선 공연에서 K팝 그룹 블랙핑크와의 합동 무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으며,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에펠탑 앞에서 진행된 '2024 파리 콘서트(Le Concert de Paris 2024)'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2022년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딴 '고티에 카뮈송 재단'을 통해 젊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헌신하고 있다.

장이브 티보데 | 피아노 Piano

Jean-Yves Thibaudet

“세련되고 우아하며, 명료함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갖춘 연주”

The New York Times



© Andrew Eccles

“거대한 콘서트홀을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친밀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연주와 소통의 대가”

The Seattle Times

우아한 프랑스 피아니즘을 대표하는 장이브 티보데는 고전과 현대를 꿰뚫는 통찰력 있는 연주를 통해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1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티보데는 취미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연주하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 다섯 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7세 때부터 대중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고, 12세의 나이에 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에 입학해 알도 치콜리니와 루세트 드카브(라벨의 친구이자 협력자)를 사사했다. 15세에 음악원 일등상을 받은 티보데는 3년 후에는 뉴욕에서 열린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에서 우승하였다.

티보데는 데카(Decca)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 녹음한 70여 개가 넘는 앨범을 통해 그래미상 후보에 두 번 올랐으며, 에코상, 독일 음반 비평가상, 디아폰즈 황금상, 쇼크 뒤 몽드 드 라 뮤직, 에디슨상, 그리고 그라모폰 어워드를 수상했다. 최근 솔로 앨범 <까르뜨 블랑슈(Carte Blanche)>를 통해 깊이 있는 음색을

들려주었으며, 다른 주요 앨범으로는 2017년 마린 알솅의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번스타인 교향곡 2번 <불안의 시대(Age of Anxiety)>, 드뷔시와 사티의 피아노 독주곡 전집 녹음,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 전집,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5번 녹음 등이 있다.

그는 또한 <리플렉션스 온 듀크(Reflections on Duke)>와 <빌 에반스와 대화(Conversations With Bill Evans)>, 그리고 <가사 없는 오페라 아리아(Aria-Opera Without Words)> 앨범과 같이 재즈와 오페라 아리아를 직접 편곡해 녹음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영화 <어른먼트>를 비롯해 <오만과 편견>, <웨이크필드>, <소리와 분노>, <프렌치 디스패치> 등의 영화 OST 연주에서도 활약해왔다.

무대에서 늘 비비안 웨스트우드 의상을 입을 정도로 남다른 패션 감각까지 겸비한 티보데는 시각예술, 교육, 자선활동 등 음악 외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헌신적인 교육자로서 그는 콜번 스쿨 (Colburn School)에서 최초의 상주 예술가로 선정되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여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티보데는 음악적 성취를 인정받아 프랑스의 빅투아 드 라 뮤지크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빅투아 도뇌르(Victoire d'Honneur)를 수상했으며 2010년 할리우드 볼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현재 그는 고티에 카뤼송과 함께 뮤직 & 뱅 오 클로 부조 페스티벌(Festival Musique & Vin au Clos Vougeot)의 공동 예술 자문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01 슈만, 환상소곡집, Op. 73

음악의 구상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슈만 이상으로 자유로움을 누렸던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환상소곡집' 혹은 '환상 소품'이라는 제목은 슈만이 여러 작품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음에는 '밤의 소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음에도 다시 이 제목으로 돌아간 것에서 슈만이 지닌 '환상곡'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다. 환상이야말로 일체의 형식과 갑작스러운 전환 등에서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달 매체가 되는 악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건강을 잃어가던 시기의 슈만이 짧게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드레스덴에서 1849년 2월 경에 만들어진 이 곡은 같은 해 7월 작품번호 73으로 출판되었으며 공식적인 초연은 이듬해 1월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졌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해 쓰여졌으나 첼로와 바이올린으로도 솔로 파트를 연주할 수 있는데, 이런 호환성은 작품 번호 70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번호 94의 '세 개의 로망스' 등에서도 나타난다. 가정, 혹은 살롱용으로 만들어진 소품의 역할을 고려해 여러 악기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했다는 설이 유력하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슈만 특유의 자유로운 서정성과 상상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악상이 전곡에 넘치고 있다.

1곡은 '상냥하게, 표정을 가지고'의 지시어로 된 a단조의 서정적인 소품으로, 3부 형식이다. 애수가 가득한 모티프가 셋잇단음표의 리듬을 지닌 피아노 반주 위로 매력 있게 등장하며, 중간부는 첼로가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환상성을 더한다. 2곡 역시 3부 형식이며 '생기있게, 가볍게'의 지시어다. 첫 곡보다 한결 밝아진 분위기와 활기 있는 템포로 진행되며, 피아노로 제시되는 주제는 첫 곡의 그것과 유사하여 통일성을 더한다. 중간부는 F장조로, 반음계적으로 움직이는 상승 선율이 슈만의 개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잦은 조옮김이 나타나나 결코 혼란스럽지 않게 정돈돼 있다. '서둘러, 정열을 담아'의 지시어인 3곡은 3부 형식과 코다로 꾸며져 있다. 첼로가 연주하는 에너지 넘치는 모티브로 시작하며, 역시 이 곡에서도 첫 곡의 멜로디가 단편적으로 쓰인다. 중간부는 a단조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멜랑콜리의 요소가 흥미로우며 두 악기가 유니스처럼 연주한다. 코다는 여러 차례 가속을 붙이는 장대한 구성으로, 16분음표로 연주하는 화려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첼로는 앞서 등장한 주요 모티브들을 꼼꼼하게 소개하며 절정으로 향한다.

02 브람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e단조, Op. 38

무르익어가는 가을에 만나는 브람스는 해가 거듭되어도 그 맛이 퇴색되지 않는다. 이왕 맛이라 표현했으니 그의 작품에 어울리는 맛을 골라보자면, 상큼하거나 달콤함보다는 쓰고 텁텁한 쪽이 아닐까 한다. 정서적으로도 가벼움보다는 중후함에 가까운 브람스의 작품에 잘 어울리는 악기로 첼로를 첫 손에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스스로 첼로 협주곡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년에 토로하기도 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그가 남긴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작품들에서 첼로의 활약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브람스에게도 효과적인 첼로 소나타를 쓰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자신의 색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창작 2기라 할 수 있는 1865년 여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습작으로 남은 18세의 작품 이후 최초의 첼로 소나타이며 구상부터 완성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두 악기 사이의 음역 분배라고 생각된다. 작곡가는 피아노의 분방한 움직임과 첼로의 매력적인 음색이 잘 엮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으며, 그 결과 이 작품에서는 첼로가 고음에 거의 올라가지 않

고 화려한 처리를 피아노에 양보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세 악장 모두 단조이며 황량한 복유럽적 분위기가 매력적인데, 당시의 브람스는 첼로를 통해 던지는 자신의 메시지를 다분히 어두운 색채로 짜내려 했다. 밝은 분위기로 이탈리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소나타 2번과 확연히 구분돼 더욱 흥미롭다.

1악장은 알레그로 논 트로포의 지시어로 엄격한 소나타 형식이다. 어두운 어조로 속삭이듯 제시하는 첼로의 1주제가 한 차례 클라이맥스를 만들고 이어지는 C장조의 경과부는 평화로운 느낌이다. 2주제는 보다 격정적인 감성을 품은 b단조이며, 전개부는 b플랫 단조로 시작해 조옮김이 자주 이루어진다. 전개부의 절정 역시 2주제를 통해서 나타나며 B장조의 새로운 요소가 등장해 전개부를 마무리한다. 이 모티브는 재현부의 코드에서도 나와 애수어린 분위기를 뉘앙스로 남긴다. 알레그레토 콰지 미뉴에토인 2악장은 4분의 3박자로, 스케르초와 미뉴엣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 악장에 들어있는 슬픔의 요소는 작곡 직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계기라고 알려져 있다. 피아노와 첼로가 서로 다른 멜로디를 제시하며 곧이어 양쪽 악기가 서로의 주제를 나눠 연주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f♯ 단조인 트리오 역시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며 브람스 특유의 흐트러진 리듬형이 피아니스틱한 효과를 더하는 가운데 첼로가 같은 선율을 연주해 센티멘털한 정서를 더한다. 푸가의 형태를 지닌 3악장은 알레그로의 지시어다. 주요 모티브는 세 개인데, 바흐의 작품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첫 주제는 셋잇단음표가 들어 있으며, 두 번째 주제는 당김음이 들어있어 유머러스하다. 세 번째 주제는 트릴과 꾸밈음으로 화려함을 더하는데, 이 주제들이 모방과 전위, 2중과 3중 대위법을 통해 자유롭게 발전하고 절정을 만들어낸다. 코다는 피우 프레스토의 템포로 강렬하면서도 개운한 마무리를 한다.

03 드뷔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L. 135

어떤 작품의 완성도, 특히 그 작곡가의 후기작들에 대해 평가할 때 갖고 있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갈함'이다. 여기서 정갈한 느낌이란, 정제된 언어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쓸 수 있는 능력을 얻은 만년의 작곡가가 정성스레 음표로 옮긴 음악에서만 받을 수 있다. 드뷔시의 경우도 이에 정확히 해당된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세한 묘사 등의 '친절한' 장치를 극도로 생략한 채 암시와 상징만을 던지며 듣는 이들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그의 후기작 어느 곡에서나 매력적으로 나타난다.

첼리스트들이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를 연주하며 겪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다분히 기능적인 것인데, 이른바 '전형적인' 첼로의 소리를 내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곤 한다. 주법의 종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 독특한 드뷔시의 걸작에서는 지극히 높은 포지션에서의 노래나 뒤집어진 음색, 반음계로 움직이는 피치카토와 거칠고 불규칙한 아르페지오 등이 자주 등장하며, 우리가 첼로의 이미지로 지니고 있는 여유로운 선율미와 풍성한 음색 대신 그로테스크함과 전위적인 표현이 난무한다. 물론 드뷔시가 난해함을 목적으로 이런 사운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극히 절제된 음표의 사용과 여백의 미덕을 활용한 프레이징, 자유롭고 변화무쌍한 분위기 전환 등을 통해 20세기 초의 유럽인들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했던 예술적 가치관의 혼란과 인간성의 존립 문제, 아방가르드적 색채의 발산을 통한 모순의 아름다움 등을 설명하려는 작곡가의 노력이 도처에 빛나고 있다.

1915년 출판된 이 곡은 말년의 드뷔시가 계획한 여섯 개의 실내악 작품 중 첫 번째 곡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작곡가의 사망으로 앞의 세 곡만 남게 되었는데, 초판에 남긴 '프랑스의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 작곡'이라는

표지에서 작품의 정체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축소된 3악장 형식이며 대강의 틀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나타 형식과 론도 형식 등에서 독일적 양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매우 느린 1악장은 프롤로그이며 두 개의 주제가 등장하는 소나타 형식의 모양을 띄고 있다. 고풍스럽고 장엄한 1주제는 피아노가, 정열적이고 표현력이 강한 2주제는 첼로가 제시하며, 자유로운 레치타티보와 카덴차적 형태를 통해 발전한 두 주제는 악기 간에 대화를 통해 나누어지며 발전하다 가라앉는다. 세레나데의 2악장은 분명한 3부 형식이다. 분방한 첼로의 피치카토와 이에 호응하는 피아노의 스타카토로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은 시종 풍자적이며, 8분의 3박자의 비바체인 중간부는 기괴한 무곡이다. 다시 돌아온 첫 부분은 자유로운 변형이 이루어지며 피날레로의 연결 고리 역할도 한다. 활기있게 시작하는 피날레는 자유로운 론도로 모두 세 개의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그 안에서 변형이 이루어진다. 즐겁고 탄력 넘치는 첫 주제는 첼로의 춤이 연상되며, 단 한 번 나오는 두 번째 주제는 매우 몽환적이다. 반음계적인 흐름이 작곡가 특유의 개성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주제는 잠시나마 서정적인 색채로 변화해 뚜렷한 인상을 남긴다.

쇼스타코비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Op. 40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시대는 어지럽고 암울했으며 예술가에게 끊임없이 인내를 강요했다. 20세기 소비에트의 역사를 시작부터 받아들여야 했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작곡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은 그의 능력을 입증한다. “20세기의 모차르트!” 서슬 퍼런 스탈린 초기였던 1925년, 19세의 신인이 써 낸 첫 번째 교향곡에 대한 평가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이었다. 뛰어난 두뇌와 거기에서 나오는 직관, 유연함과 재치를 고루 갖춘 음악적 기질과 함께, 어쩌면 사람들은 어두운 미래를 앞두고 있는 ‘소비에트인’의 내면에 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탁월한 서정성에 주목했는지 모른다. 20대 후반을 지나던 쇼스타코비치의 풍자 정신, 기발한 리듬감과 함께 슬라브적 가락의 20세기 적 변형이 흥미롭게 나타난 걸작이 첼로 소나타 d단조다. 1934년 겨울 완성돼 그 해 크리스마스에 초연된 이 작품은 첼리스트였던 절친 빅토르 쿠바츠키에게 헌정되었다. 이 해는 쇼스타코비치의 기념비적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 발표된 것으로도 기억된다.

알레그로 논 트로포의 1악장은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지키고 있으며 유려하게 흐르는 1주제로 시작한다. 표정이 풍부한 2주제는 B장조로, 피아노가 먼저 제시하고 첼로가 곧이어 이를 받아 극적으로 전개시킨다. 주제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면에서 쇼스타코비치가 베토벤의 소나타들을 떠올렸다는 것이 느껴지는 1악장은 라르고로 더욱 강한 인상을 던지는 코다 역시 특징적이다. 2악장 알레그로는 스케르초적인 역할을 하며, 처음에 피아노가 주도해 악장의 음향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쇼스타코비치의 실내악에서 자주 나타나는 선율적인 동시에 풍자적인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2악장은 그 다조적 배열에서 아이러니가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라르고의 지시어가 있는 3악장은 우울한 선율이 처음부터 등장해 듣는 이들의 감성을 가라앉히며, 큰 도약 없이 은유적으로 슬픔을 묘사해 매력적이다. 쓸쓸하다 못해 황량한 러시아적 감상이 드러난다. 론도 형식의 4악장은 긴 음표와 수다스러운 짧은 음표들이 즐겁고 세련된 대조를 이루며 발전해간다.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기분전환과 생경한 전개가 마지막까지 이어지며 독특한 절정을 만든다.

LG아트센터 서울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마곡지구에서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LG아트센터장

이현정

공연기획팀

팀장 신민경

김주연 김다솜 송수찬 김호연 정서영

대관·하우스 김철원 허윤정 노유진 옥가희

홍보마케팅팀

팀장 김지인

한동희 오경은 오지수 이해리

디자인 신미현

티켓 배운정 류선주 김나연 김아영

김수정 이예림

운영팀

팀장 양영수

김재운 김순자 김홍연 김지훈 안태훈 염인호

무대기술팀

팀장 엄성기

무대 홍지웅 송경근 배원수 박승철 윤혜성

심성훈 이유리

조명 전명진 류대경 류한경 이준현 손나래

음향 이범훈 엄준석 김현주 오성범

제작지원

무대 크루 송홍근 김관양 안병로 박재민

이광익 김태훈 최성호 김동영

피아노 조율 이진우(더 뮤직)

LG아트센터 서울

고객 만족도 조사



관객 여러분께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기간 ~ 11/9(토)

기프티콘 발송일 11/22(금) 이후 순차 발송

* 본 설문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참여 인원 마감 시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LG SIGNATURE 홀은

본질의 가치(The Art of Essence)를 지키며
삶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의 초 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연장입니다.

SPONSORED BY

LG SIGNATURE

LG SIGNATURE 세탁건조기



세탁에서 건조까지
하나의 도어 안에서

새로운 세탁건조의 시대

